

# 광림 뉴스레터

## KWANGLIM NEWSLETTER

등록번호 다-467 / 발행인 김정석 / 발행처 광림교회 서울 강남구 논현로 175길 49 TEL 2056-5600 / www.klmc.church



## 응답의 간증 위에 믿음의 소망을 더하다

###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을 여는 호렙산 기도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풍성한 찬양이 드넓은 예배당을 가득 채우며 울리는 6월 17일(토) 새벽 4시 45분. 호렙산 기도회 두 번째 주말은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매일 새벽 예배당을 채우는 성도들의 기도소리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그날의 예배당에는 평일과 달리 눈에 띄는 풍경이 있었다. 성가대석이 차고 넘쳐 오케스트라석 앞까지 가득 채운 하얀색 옷을 입은 여선교회의 모습이였다.

호렙산 두 번째 토요일을 특송으로 섬기게 된 여선교회는 새벽 3시 반부터 교회에 모여서 연습을 진행했다.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의 모습으로 주의 영광 위해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고자 하는 여선교회의 소망이 돋보이는 특송 무대는 ‘은혜 아니면’으로 시

작해 ‘내가 매일 기쁘게’의 후렴구인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특송에 참여한 이은지 성도(10교구)는 “찬양 제목 그대로,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복되고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광림 여선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크신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하며,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말을 맺었다.

6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을 열라’ (Open Heaven's Gates with Prayer) (왕상 18:37) 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호렙산 기도회는 1989년 시작되어 올해 35회를 맞는 광림교회의 대표적인 연간 행사 중 하나이다. 지난 34년간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수없이 응답하신 간증의 역사 위에서, 새롭게 응답받는 소망의 기쁨을 체험하기 원하는 성도들의 발길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호렙산 기도회는 ‘일터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동행하심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쁨을 누리는 가정’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을 받으며 귀하게 쓰임 받는 자녀와 같이 광림의 권속들을 위해 함께 중보기도하는 귀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특별히, 매주 주말은 ‘가족과 함께하는 호렙산 대담함 - 호렙산에 숨겨진 10개의 보물을 찾아라!’ 라는 테마로 영아부부터 소년부에

이르기까지 어린이들이 열 가지 보물스티커를 모아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테마북이 준비되어 있다.

토요일마다 설치되는 포토존에는 장막을 형상화 한 인디언텐트, 석판, 양 인형 등 성경속 다양한 소품도 준비되어 있어 관심 있는 가족들은 함께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위선미 기자



# 하나님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삼하 12:20)

본문을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몸에서 난 다윗의 아들이 갑자기 병이 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이 나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다윗은 임금이지만 땅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신하들이 웅성거리는 데 이상한 기운이 돌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 무슨 일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신하들은 왕의 아들이 죽었음을 아뢰었습니다. 다윗은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엎드려 기도하던 몸을 일으키고 나가서 목욕을 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성전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정성들여 예배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신하들은 어째서 왕께서는 자식이 병 들었을 때는 그렇게도 몸부림치며 금식하며 기도하더니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단정한 몸으로 예배를 드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서 혹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살려 주실 지도 모르기에 그러했다. 그러나, 아들이 죽은 다음에는 이미 하나님이 불러가셨으므로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이제는 내가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며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귀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말씀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면 영적인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 첫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평화가 임합니다

다윗은 아들이 병 들었을 때에는 땅에 엎드려 간절히 하나님께 호소했지만, 죽은 후에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목욕을 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다가 아들이 죽은 다음에는 현실 그대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때에 다윗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은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에게 결혼 후 얼마 안 되어 가정 불화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아내나 남편이 ‘왜 나와 같은 성격이 아닌가? 왜 이렇게 나를 이해할 수 없느냐?’ 하는 불만 때문에 생기는 갈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성향과 성격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가정의 화평과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난관에 대하여 하나님께 따지기 전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좋은 것을 허락 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현

**사무엘하 12:15-23**  
 15.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나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시매 심히 앓는지라 16.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17.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18. 이레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기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왕이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19.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기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20.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와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21.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이까 하니 22.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23.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실을 받아드림으로 마음의 평안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 둘째, 새로운 마음을 가질 때 평화가 임합니다

다윗은 그의 신하들로부터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 일어나 목욕을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와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20절) 다윗이 이렇게 몸과 마음을 깨끗이 했다는 것은 새로운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새로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때, 우리의 죄와 잘못, 실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큰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와 잘못을 범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넓고 크기 때문에 모두 다 용서하고도 남습니다. 이 무한한 주님의 사랑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맡기며, 성령의 기름을 바를 때에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4절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와는 영원한 반석이시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시는 주님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뢰하면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주시니. 오늘 나의 무거운 것, 근심과 걱정, 모두를 주

님 앞에 내어 맡깁시다. 부정적인 생각, 마음이 억눌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털어 놓고 예수 이름으로 내어 맡길 때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 셋째, 하나님과 조화를 이룰 때 평화가 임합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 전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을 맞추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삶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순종을 통해 우리는 평화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유대인처럼 많은 전쟁을 겪은 민족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침마다 ‘샬롬’(shalom)이라고 인사합니다. 샬롬이란 평화라는 의미입니다. 샬롬이란 소극적인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 말 속에는 세 가지의 새로운 관계성을 통해서 평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과 조화를 이루어서 내 양심과 도덕적인 가치가 하나님의 형상과 조화를 이룰 때 평화가 찾아옵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과 조화를 이룰 때 평화가 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내가 조화를 이룰 때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보조를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목적이까지 갈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애의 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그 궤도를 따라갈 때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갈 수가 있습니다.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쁘시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룰 때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참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영상은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하나님 말씀과 사랑으로 자라는 호렙산의 아이들

## 기도의 축제 <가족과 함께 오르는 호렙산>



호렙산 기도회는 광림교회만의 고유한 믿음의 체험현장이며 기도의 축제가 열리는 곳이다. 특별히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는 <가족과 함께 오르는 호렙산>이 열리고 있다.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새벽에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의 따뜻한 울타리인 성전에 나와 기도를 생활화하고 말씀과 사랑으로 성장하고 있다.

6월 17일(토) 아침 밀레니엄광장에는 밝은 웃음소리가 가득한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아기 때부터 교회를 집처럼, 교회 앞마당을 놀

이터 삼아 자라고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다. 영아부부터 초등부까지 주말마다 교회에서 만날 뿐 아니라 광림어린이집(영유아 교육), 사이닝키즈(미취학 아동 교육)를 거쳐 평일에도 사이닝스쿨(초등 주중 돌봄 프로그램)과 SSA(토요 프로그램)에서 배우며 10년을 함께 해온 가족 같은 절친들이기도 하다.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세대의 주인공인 아이들에게 호렙산 기도회가 왜 좋은지 물어보았다.

김루카(초등부) “고민이 있으면 호렙산 기도회에서 기도로 풀 수 있어서 좋아요.”  
 김유하(소년부) “가장 기대되는 것은 매일 새벽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김민하(초등부) “하나님과 기도할 때 ‘와!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 라는 느낌이 무척 설레입니다.”  
 맹주호(초등부) “새벽기도회에 갔을 때 처음에는 힘들지만 나중에는 은혜를 받아요.”  
 맹은호(초등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느낌이 들어서 참 행복해요.”  
 선주원(초등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서 좋아요.”  
 장수혁(초등부) “하나님의 꿈과 선물로 주신 귀한 재능을 발견하길 기도해요.”  
 전상진(초등부) “매일 사이닝스쿨에서 성경말씀 배우는 시간이 좋는데 호렙산에서도 찬양하고 말씀 들어서 좋아요.”  
 홍성겸(초등부) “새벽에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친구들이랑 호렙산에 같이 가니까 더 즐겁고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성장하며 기쁨을 누리는 아이들의 믿음의 고백이 호렙산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있다.

소현수 기자

# 모이기에 힘쓰는 선교구 연합속회

## 호렙산 기도회 중 매주 토요일 기도의 결속 다져



4선교구 연합속회



7선교구 연합속회



6선교구 연합속회

이른 새벽에 호렙산에 올라 저마다의 기도 제목은 물론이고 교회, 나라, 세계 열방을 생각하며 기도의 제단을 쌓는 40일의 여정은 광림교회 교인들의 자랑이자 상징이다. 호렙산 기도회 기간에는 전교인이 오직 기도하는 데 집중하며 힘을 쏟는데, 매주 토요일은 각 선교구별로 연합속회를 드리며 기도의 결속을 다지고 있다. 토요일은 평일에 기도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과 아이들까지 가장 많은 인원이 모이는 날이다.

호렙산에 올라 뜨겁게 기도하고, 선교구 연합

속회로 모여 예배드리며 토요일을 시작하는 각 선교구의 소식을 전한다.

4선교구는 호렙산 기도회 기간 중 매주 토요일 본당 지하 1층 애찬관에서 연합속회로 모인다. 매주 10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여 힘차게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며 호렙산에서 받은 은혜와 감사를 이어간다.

지난 6월 17일 토요일 새벽에는 정용식 목사(4선교구)가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시편 141:1-5)’라는 제목으로 “항상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게 하고, 악에 대해 예민하게 분별해

악을 행하지 않으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음성을 거절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하며 4선교구 성도들의 마음과 귀를 성장케 했다. 4선교구는 매주 새벽 연합속회 때마다 특별찬양을 하는데, 독창·중창·악기 연주 등 각자의 달란트를 뽐내며 은혜를 나누는 자리다. 이날 찬양은 박종석 연합회장을 비롯한 남성 6인의 힘찬 합창으로 성도들의 박수 세례를 받았다.

7선교구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호렙산 기도회 중 매주 토요일 벨엘성전에 모여 자녀와 함께하는 연합속회를 드린다. 매주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누구보다 모이기에 힘쓰는 선교구임을 보여주고 있다.

조성환 목사(7선교구)는 지난 17일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소망이란?’(롬 15:1-6) 제목의 말씀을 전하며,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며, 말씀 안에서 위로가 있으니 장로는 1년 동안 5번, 권사는 3번, 집사는 2번, 성도는 1번 이상 성경 통독할 것을 권면했다.

지난 17일 박영균 목사가 담당하는 6선교구도 교육관 2층에 모여 연합속회를 드렸으며 오는 7월 1일 토요일 새벽에도 연합속회가 예정돼 있다. 4·6·7 선교구 외에도 호렙산 기도회 중 각 선교구별 연합속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교회 주보를 통해 해당 선교회 소식을 확인할 수 있다.

한혜선 기자

### 포토 뉴스



**호렙산 기도회**  
제35회 호렙산 기도회가 6월 5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기도의 벽**  
본당 로비에는기도의 벽이 세워져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채워지고 있다.



**가족과 함께 오르는 호렙산**  
호렙산 기도회 기간 중 매주 토요일 포토존에서 촬영할 수 있다.



주한 요르단 신임대사가 광림교회를 방문했다.

### 담임목사 동정



- 6/12~ 호렙산 기도회
- 6/15 로잔 국제이사회
- 6/23 성령한국청년대회 설명회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http://www.klmc.church)

# <제35회 호렙산 기도회>

##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을 열라”

Open Heaven's Gates with Prayer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와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왕상 18:37)





목회현장

전도의 사건을 일으키라



김정우 목사(광림남교회)

“이런 교회가 있었나요?”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많이 은혜 받고 갑니다” “이번주에는 광림남교회로 가서 등록하겠습니다” 동백 호수공원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는 중에 전도를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께 지나가는 주민들, 그리고 타교회 성도님들, 교회를 찾고 계셨던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감동을 나누어주시고, 주일에는 교회를 찾아오신 발걸음도 있었습니다.

총력전도 기간에 전도를 하던 중에, 우리 광림남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전도로 하나가 되어 모이고, 함께 전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백 호수공원에서 함께 악기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님들은 공원에 계신 분들과 공원 주변 거리로 나가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생각보다 좋은 반응을 해주었고, 무엇보다 성도님들께서 전도하는데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6월부터는 2주에 한 번씩 박성아 집사님과 성도님들 중심으로 버스킹과 노방전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버스킹 전도팀을 이루어서 한 팀에서는 찬양을 하며, 한 팀에서는 전도를 합니다. 찬양, 가곡, 댄스, 악기 연주 등으로 함께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 하셨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과 분리되어 다른 모양과 다른 양태의 삶을 살아가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에게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빛을 발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전도는 한순간으로 멈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벌어져야 하고 지속적으로 어떠한 사건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체질이 되어서, 전도가 되어지게끔 해야 합니다. 광림남 1선교구는 전도하는 선교구, 기도하는 선교구가 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주님 품에 한가득 안겨 드리는 기쁨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광림남교회

여선교회, 버스킹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



여선교회에서 6월 14일(수) 수요일 오전 예배 후 성도님들에게 점심식사를 대접하였고, 그 후에 성도님들과 함께 동백호수공원으로 가서 버스킹 전도를 진행했습니다.

트리니티 찬양팀 박성아, 최희숙, 정미경, 이선아, 이수현 집사님이 찬양과 난타 공연을 진행하였고, 목사님, 전도사님과 10여명의 성도님들이 주변에서 전도지를 나누어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박성아 집사님은 4월 총력전도 기간에 세분의 부목사님들이 진행했던 버스킹 전도를 보고, 자신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아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버스킹 전도를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박집사님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찬양

에 은사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성악을 전공하여 성가대와 찬양팀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던 중 암 4기 진단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的时间을 가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치유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자신을 치유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자랑하고 전하기 위해 버스킹 전도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사람들이 모일지 걱정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기도하며 공연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들에게 찬양과 공연으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

음에 감사했습니다.

박성아 집사님은 버스킹 전도를 결단했을 때, 버스킹 장비도 바로 생겼고, 함께 찬양하고 공연할 수 있는 동역자들도 모이게 되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버스킹 앞으로의 일정은 매달 두번 수요일 오후 6시에 진행합니다. 버스킹 전도팀을 통해서 동백호수공원에 오는 영혼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김현진 전도사

의료선교위원회 건강강좌 시리즈

장노년기 안질환의 예방



안과에 방문하는 장년층이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증세가 안구건조증이다. 시림, 뻑뻑함, 피로감 등을 느끼다가, 심해지면 두통과 시력 감퇴 및 눈물 증세를 말하기도 하는 질환이다. 인공눈물을 포함한 점안액 및 마이봄샘 이상을 교정하기 위한 아이피엘치료 등을 처방받는다.

더불어 원인 교정을 위해, 늘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하는 사항이 있다. 충분한 수면시간 유지와 스트레스 및 비만 관리, 스마트기기 사용 중 휴식, 온찜질, 저자극성 화장품 선택 및 항산화식품 섭취 등이다. 또한 무분별한 안약 사용 또는 안검 수술의 후유증으로 안구건조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장노년층이 가장 많이 받는 수술이 백내장수술이다. 노인성 백내장의 경우 탁월한 예방법이 없으므로,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수술을 받는 것이 좋다. 완치 가능한 질병이다. 노령인구 증가와 서구화된 식생활로, 최근 급증하는 노년 황반변성(AMD)은 건성과 습성(삼출성)으로 나눈다. 전체의 10%를 차지하는 습성 황반변성 환자는 심각한 시력장애를 겪게 되므로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며, 단계에 따른 예방법을 실천해야 한다. 금연과 적절한 체중유지, 고지혈증 관리, 자외선 차단, 규칙적인 운동 및 항산화제 복용 등을 권한다.

소리 없이 실명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진

녹내장은, 안압이 상승하는 원인과 속도에 따라 급성과 만성으로 나눈다. 초기 무증상이고, 고혈압과 당뇨, 근시 환자에게 잘 발생하는 만성녹내장은 건강검진 등을 통해 주로 발견된다. 적절한 안약 투여로 관리가 가능하다. 반면 원시 및 여성에게 잘 발생하는 급성은, 질병 발현 직후에 적절히 처치하여 후유증 없이 치료할 수 있다. 급성녹내장 예방을 위해 어두운 곳에서 장시간 독서 또는 옆드려 주시하지 않도록 한다. 백내장 수술로 예방할 수 있다. 망막에 필수 영양소로 알려진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인체 내 합성이 불가능하므로 섭취해야 한다. 항산화제 역할을 하므로 광화학 손상을 방지하고, 눈부심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 메리골드꽃잎, 시금치, 케일, 당근, 파프리카, 토마토 등 풍부하고 다양한 색깔의 색소를 함유한 야채를 섭취하면 된다.

민경협 집사(의료선교위원회)



청년부

# “하나님께서 맡기신 다음 세대를 지켜라!”

<2023 LFC 광림 청년부 제16회 국내교육선교>



2023년도 여름, 광림교회 청년부에서는 16회차를 맞은 국내교육선교를 진행합니다. 상반기 동안 예배와 속회를 통해 본질을 지켜왔던 청년부는 하반기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보내시는 선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미자립교회 다음 세대들의 신앙 회복과 교회학교 부흥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는 이번 여름교육선교는 전국 15개 지역, 120개 교회, 1,200명의 아이들을 품은 250명의 청년들이 참여합니다.

5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교육선교는 7월 24일(월) 1차 평택, 속초, 부산 지역을 시작으로, 세종, 부안, 화성, 충주, 가평, 고성, 남양

주, 광주 하남, 이천, 당진, 용인, 대전 지역의 선교가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학교가 무너진 지방의 지역교회에서는 여름성경학교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에 청년들이 한 달간 준비한 말씀과 찬양, 공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국으로 흩어집니다. 이를 위해 청년부는 6~7월 두 달간 교구와 속회를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6월 24일~7월 8일까지의 3주간의 토요일강습회와 팀모임을 통해 집중적으로 선교를 준비합니다.

속초지역팀장으로 섬기게 된 이강현 형제는

“뜨거운 여름의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광림교회 청년들의 섬김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많은 광림의 믿음의 선배들이 지나간 역사와 전통의 교육선교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됩니다. 올해는 광림교회 청년들의 헌신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실지 기대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국내선교팀으로 섬기는 김무성 형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교육선교의 자리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의 부족함까지 들어 사용하실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뜨거워질 광림교회 청년선교국을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LFC 광림 청년부를 통해 지역의 교회들마다 교회학교가 회복되고 부흥하는 일들을 기대합니다. 이번 여름,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살아가신 하나님을 만나며, 청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 받는 기쁨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정영욱 전도사(청년부)

신앙 간증

## ‘예배를 쌓아라’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1교구 권소리 청년입니다. 해외선교를 통해 저에게 주어진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고자 합니다. 저는 두려움과 걱정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이 또한 주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셨고, 해외선교를 통해 저의 이 연약한 부분을 다뤄가셨습니다.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18년도 미안마 선교를 준비할 때, 저는 해외선교 사역팀에 팀원으로 있었으며 이때 미안마 담당으로 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팀장이 세워질 때까지 팀 모임을 이끌어가는 것이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팀 모임을 하면서 미안마 선교에 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취업준비하고 있던 상황이라 선교에 가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팀원들이 함께 기도해 보자고 하였고, 기도로 팀모임을 함께 준비하던 중에 제 비뿔기를 통해 팀장이 되었습니다. 불안정한 나의 현실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였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때 저의 기도는 “하나님 제 상황을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못해요. 그리고 팀장을 할 자신도 없어요.”였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선교를 가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였고, 쉼이나 예배에 가서 선교를 갈 수 없다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쌓아라”라는 마음을 부여주셨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기도를 해도 아무 말씀 없었던 하나님께서 저에게 처음 말씀하신 것이 “예배하라”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기도할 때마다 계속 “예배하라”라는 마음만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한 응답이 아니었고, 이해되지 않아 하나님께 따졌으나, 결국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안했던 제 마음으로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제 취업, 이후의 모든 상황을 주님이 다 책임져주세요!”였습니다. 이후 미안마 선교 가기 전에 저는 취업을 하였고, 회사에서 휴가까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는 모든 상황이 열리고야 알았습니다. 살아왔던 모든 날 중 이때가 가장 하나님을 찾았던 때라는 것을, 하나님은 저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셨고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길 원하셨습니다.

삶 속에서 저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늘 최선의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 4:6-7)



권소리 지구장(청년부)

청장년부

# 기억 속 은혜를 회복시켜 드립니다

소망사진관, 7월 8일(토) 호렙산 기도회 후 본당 로비에서 진행



제35회 호렙산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이번 호렙산 기도회에는 많은 분들이 본당을 꼭 채우며 기도하시고, 해외 수습 개국에서도 함께 기도하며 세계적 기도 운동으로 새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도 이른 새벽 피곤한 기색으로 교회에 오시지만, 기도 후 교회 밖을 나가시는 얼굴에는 용기와 기쁨이 깃들여 보입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용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현재의 감각은 시간이 지나면서 흐릿한 기억으로, 잊혀진 감각이 될 수 있습니다. 담임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받아 적었던 노트를 복기하며 주신 은혜를 되새겨 보지만, 예전의 감각이 좀처럼 기억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청장년부에서는 ‘소망사진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의 영어 단어 ‘포토그래피(photography)’는 헬라어 ‘빛(phos)’와 ‘그리다(graphos)’ 합성어로 ‘빛으로 그리다’라는 뜻입니다. 즉 사진이란 ‘빛의 그림인 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글과 이야기로 자신의 부활 소식을 알리지 않으시고, 빛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빛된 예수님을 보고 사랑과 인자함, 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느꼈습니다. 사진은 잊혀졌던 당시의 감동, 열정, 사랑을 다시 불러 일으키게끔 도와줍니다.

저희 가정에도 수년간 가족과 함께 찍은 호렙산 기도회의 사진들이 있는데 유모차에 앉아 있던 아기 때의 모습에서 어느덧 훌쩍 자라 현재 초등학생이 되어 함께 찍은 사진까지. 매년 호렙산 기도회에서 찍은 가족 사진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잊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저 때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지, 몸이 아팠던 가족원을 향해 치유를 주셨지.’ 잊었던 감격이 되살아납니다. 사진은 살아있는 기억으로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올해 2023년, 35회 호렙산 기도회에도 어김없이 소망사진관은 진행됩니다. ‘소망’이라는 이름처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능력 이심’을 매 순간 기억하시게끔 사진을 통해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수년간 이어온 사진들을 통해서 과거에 받은 은혜, 현재 주시는 은혜, 미래에 주실 은혜를 기억하고 기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까지.

유용찬 목사



#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이야기 33



## 산헤드린 법정에서 선 예수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마 26:59~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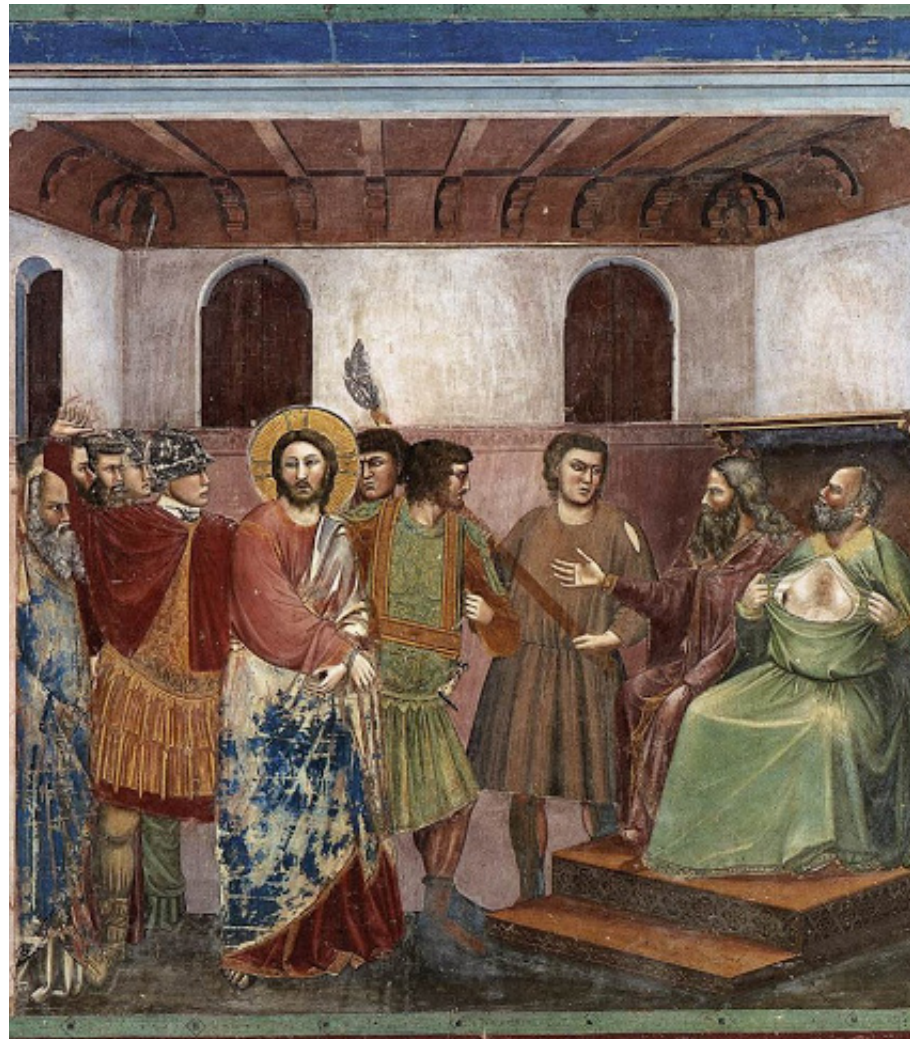
예수를 체포한 무리는, 대제사장 가야바 앞으로 예수를 끌고 갔다. 이미 가야바의 집에는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관들이 모여 있었다. 한밤중에 급하게 모인 그들은 초조한 심정으로 빨리 예수가 잡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산헤드린은 유대 최고의 의결 기관이다. 대제사장이 의장이며, 재판관(공회원)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제사장 계급을 독점함), 서기관과 장로 등 유대인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산헤드린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도 입법(立法, 법을 제정함)과 사법(司法, 개인 상호 간의 권리 및 의무관계를 규율함)을 총괄

했는데, 모든 안건은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단 정치적인 문제는 로마의 통치를 받았으며(사형권은 로마에 있음), 주로 율법을 해석하고, 종교적인 재판을 주관하며, 성전의 치안을 유지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사실 산헤드린은 재판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는 정해진 법이 있었다. 모든 재판은 그 법정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에 이루어지도록 정해져 있었다. 따라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에 모인 것이나 한밤중에 예수를 재판한다는 것은 불법이었다. 그들은 법을 잘 아는 재판관인데도 오직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급급하여 불의(不義)한 법정에 그를 세웠다.

대제사장 가야바와 재판관들은 예수에게 사형을 선고하기 위하여 그를 고발할 죄목을 꾸미고자 했다. 많은 사람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내놓았지만, 도무지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던 중에 이미 짜인 대로 두 사람이 나와 예수를 고발했다. “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 예수 그리스도를 심문하는 가야바\_ 예수 그리스도를 심문하며 화가 난 대제사장 가야바가 걸옷을 찢고 있는 장면이다. 조토 디 본도네의 작품



▲ 예수 그리스도와 가야바\_ 체포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심문을 받는 장면이다. 안토니오 멜라 코로나의 작품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저도 분명히 저 사람이 한 말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재판관들은 두 사람의 증언이 일치하면 증거로 채택하는 법을 악용하여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몰아 사형에 처할 계획이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나와 예수에게 말하였다. “이 증언에 대해 너는 뭐라고 할 말이 있느냐?”  
이에 예수는 침묵할 뿐이었다.  
그러자 가야바가 다시 말했다. “내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권세로 너에게 명한다.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예수는 짧게 대답했다. “내가 말한 대로다. 내가 훗날 하나님의 권능과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내가 직접 보게 될 것이다.”  
예수의 말에 흥분한 대제사장은 흥분해서 자기 옷을 찢으며 소리쳤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소!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여러분도 다 들었소. 여러분은 이 사람의 신성모독을 그냥 두고 볼 것이요? 여러분, 말해보시오.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겠소?”

그러자 그들이 일제히 말했다. “사형해야 합니다. 신성모독입니다. 사형선고가 맞습니다.”  
여기저기서 예수를 사형하자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쳤다. 그들은 예수를 때리면서 조롱했다.  
“네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맞춰 보아라.”  
그들의 조롱에도 예수는 그 수모와 고통을 묵묵히 견디고 있었다.

광림뉴스레터



※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출판사 아이템하우스에 있으며 광림뉴스레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